石油人인터뷰 / 具平會 湖油社長

脫石油政策은 全에너지産業의 合理化와 일치하는 方向으로 伸縮性있게 推進되어야 한다.

対談 / 金乾洽〈大韓石油協会 · 弘報室長〉

問 올해 上半期 우리 나라의石油消費는 前年同期対比 6%가량 감소했읍니다. 石油需要 감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全世界的인 현상으로 지난 1/4分期中 OPEC諸国의 石油消費도 7%정도 감소했읍니다. 이러한 石油需要감소추세에 따라 政府도 長期에너지需給計劃을 축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社長님께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石油需要展望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答 지적하신대로 지난 上半期에는 前年同期에 비해 6%가량 줄었읍니다. 第2次 石油波動 이후 80年에는 前年보다 1%가량 줄었고, 81年에는 다시 0.7%가 줄어 2年동안 약 2%가 감소 했읍니다.

지난 上半期中 需要가 현격히 줄어든 것같이 보이는 것은 일반 소비감퇴에 더하여 季節的인 원인과 가격인상시점이라는 두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즉 작년 1,2월은 혹한 이었던 반면에 금년 1,2月은 이상난동이란 정도로 날씨가 따뜻하여 난방수요가 줄어 들었고, 또 작년 4月19日에 油価引

上이 있었는 바, 가격인상 전에 仮需要가 불어서 작년 상반기에는 실제소비보다 需要가 컸던 원인이 있읍니다.

그러나 금년 2/4分期 내지 7月의 需要를 보면, 작년 동기에 비해 약 5%가 증가했으며, 금년평균은 작년 소비수준을 유지하여 하루 50만배럴 정도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앞으로 需要展望을 보자면 먼저 経済成長率과 総에너지需要로부터 출발해야겠지요. 경제가 성장하자면 에너지가 더 쓰이는 것이고, 지난 몇해동안을 보면 1%経済成長에 대해 1.2~1.3%의에너지需要증가가 있었읍니다. 앞으로는 에너지의 高価化, 에너지節約型 産業의 발전등을 감안하여 경제성장율과 동일한 年間 6~7%수준이 되지 않느냐 봅니다.

이러한 에너지需要증가는 거의 대부분 輸入에너지로 메꾸어야하는데, 石油需要의 증가여부는 輸入에너지를 石油로 하느냐, 아니면 石炭이나 天然가스, 또는 原子力으로 하느냐 하는 정책결정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읍니다. 앞으로 수년간 石炭과 天然가스 輸入計劃및 原子力発電所 가동등으로 石油需要가 상당히 代替된다 하더라도 代替에는 여러가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하루 50만배럴 정도의 현수준 내지 年間 1% 정도씩 약간 이나마 증가하지 않느냐 봅니다.

問 현재 美国과 日本에서는 精油施設의 축소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西欧諸国도 대폭적인 정유시설의 폐쇄가 불가피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需給展望에 비추어 精油施設 능력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答 현재 수요가 하루 50만배럴선에서 머물고 있는 반면,

国内精油5社의 시설능력은 하루 79만배럴로 平均稼動率은 50%를 약간 웃도는 형편으로 精油社에 따라서는 50%를 하회하는 회사도 있읍니다. 따라서 精製施設만을 놓고 본다면 앞으로 상당기간 별 부족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石油消費構造의 변동에서 오는부대시설의 문제가 있읍니다.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石油製品은 揮発油, 灯油, 軽油등의 軽質油와 重油, 벙커-C油등의 重質油의 두가지로 大別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구조를 보면, 軽質油와 重質油의 비율이 꼭 반반이어서 일반원유에서의 생산비율과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石油需要가 전체적으로는 현로 하루 약 3만배럴입니다. 이 3만배럴의 벙커-C油를 軽質油로 분해하자면 시설비용이 다시 2억여 달러가 들게 됩니다. 도합 6억여 달러가 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에너지需要를石油 이외의 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은 기존 油類施設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진행되어야겠지요. 너무 급격한 油類代替는 기존 精油施設의 遊休化, 내지는 원유정제보다 훨씬 더 과중한 投資가 드는 정유부대시설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問 1,2次 石油波動을 겪으면서 우리는 모두 큰 고통을 받았읍니다. 이에 따라 石油에 대

> "급격한 油類代替는 기존 精油施設의 遊休化를가져 오므로 代替에너지政策은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

상유지 내지 약간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 内容을 들려다 보면, 代替가 비교적 용이한 重質油는 줄어들고, 代替性이 없는 軽質油쪽은 계속 증가하여 5,6년 후에는 軽質油가 60% 이상이 되고, 重質油는 40% 이하로 예견합니다. 이렇게 되면 값도 비싸고, 供給의 안전성에도 문제점이 있는 軽質原油를 사다 쓰거나, 아니면重質油를 軽質油로 바꾸는 分解施設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石油를 他에너지로 代替하는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例를 들어 기존 油類発電所 두군데, 용량으로는 백만KW를 石炭으로 代替한다고 합시다. 우선 代替하는 시설비용이 약 4억달러가 듭니다. 다음에 여기에 代替되는 油類는 重質油인 벙커-C油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政府는 脱石油政策을 적극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세계은행도 현재의 長期에너지計劃을 재검토하라고 건의한 바 있읍니다만, 精油業界의 입장에서 볼때, 脱石油政策이 너무 의욕적이랄까, 비현실적인 요소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点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答 代替에너지政策의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代替 에너지 사업을 위한 관련업계에서의 경제성검토과정중 石油와의 価格비교시 벙커-C油의 경우 국가정책상 부과되는 비축기금, 安定基金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国内油価政策上 국제가격구조에 비해 정부가 높게 책정한油価와 단순비교로써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점.

둘째, 発電部門에서 신규 발전소는 石炭및 原子力発電所를 중점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며, 더구나 기존 油類発電所를 石炭및 LNG로 전환하는 것은 이들 発電用 油類소요를 반영하여 투자된 기존 精油施設을 遊休化하게 되는 점.

셋째, 대부분의 代替에너지는 石油의 重質溜分(벙커-C油) 을 代替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石油需要구조를 軽質化하게 되며, 따라서 高価의 軽質原油를 확보하여 석유수요를 공급해야 하므로 석유제품의 제조비용이 상승할것이며,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軽質原油의 생산에 비해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軽質原油의 소요량을 확보 못할 경우 국내油類수급균형에 차질을가져올 가능성이 많다는 점.

넷째, 燃料油를 軽質油로 전환하는 重質油分解施設과 脱黄施設을 갖춰야 하는데 代替 에너지로 인한 重質油가 수요침체로 遊休施設을 안게 되어 투자기반을 상실하는데다가 신규시설투자를 해야 하므로 精油産業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며, 더우기 기존 油類発電所의 石炭및 LNG로의 연료전환은 이러한 추가부담을 시기적으로 앞당기게 될것이라는 点입니다.

따라서 代替에너지供給을 위해서는 항만시설, 수송 및 저장시설, 사용자측의 연소시설 改替등을 위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뿐 아니라, 이로 인해 精油産業体에는 遊休정제시설의 발생, 高価의 軽質原油 사용, 重質油 分解施設 및 脱黄施設에 대한 투자를 필연적으로 유발시키므로 代替에너지政策의 경제적인 타당성및 代替시기에 대해서는 汎国家経済的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은 후에 조정, 결정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합니다.

問 현재 精油業界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油価의 현실화입니다. 다른 産業은 6.28조치로 금융상 혜택을 받고 있읍니다만, 精油業界는 金利가 높은 유전스라는 단기외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별혜택이 없읍니다. 또 換率이 계속 상승하여 原価상승 압박이 가중되고 있고, 需要는 계속 감소되고 있어 精油業界는 문자 그대로 四面楚歌에 빠진 느낌입니다. 社長님께서는 현재 引上要因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소비자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答 換率上昇이 油価引上要因의 가장 큰 부분이 됨은 周知하시는 바와 같습니다만, 금년 3월의 油価조정시 정부가 예상한 換率上昇은 연평균 3%로 보아 年末 1달러当 724.40원으로 계산했으나 실제 환율은 지난 5月 중순에 이미 정부가 예상한 年末 換率 이상으로 인상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 換率이 달러当 743원에 이르고 있어 적어도 올해 換率上昇率은 8%선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換率上昇으로 인한 原価上昇압박은 油価現実化로 해소되어야 할 것이며, 석유류 수요증가시의 국내석유류 제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정유시설의 증설에 투하된 막대한 고정투자에 비해 최근의 수요감퇴로 인해 精油社의 가동율이 5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이 또한 油価引上要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問 油価制度는 精油業界로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금년초부터 油価自律化라는 말이 자주 거론되고 있읍니다만, 어느 정도 自律化되는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他律이든 自律이든 油価変動要因을 산출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油価算定方式을 공식화해서 油価변동요인이 일정수준 이상일 때 자동적으로 油価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現行 油価制度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시는지요.

答 정부에서 精油社의 損益을 고려하여 油価를 결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읍니다. 첫째로 연간매출액이 6조원 이상에 이르는 石油製品価格에 대해 정부의 효율적인 管理가 가능한가 하는 점이고, 둘째는 가격조정의 경직성으로 장기적인 油価安定을 이룩할 수 없으며, 셋째는 국제석유시장에서의 需給및 가격동향에 대해 신축성있게 対処할 수 없음은 정부에서 지난 날에 취한 価格政策이 국제동향과 너무 乖離되었던 사실이 잘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油価制度는 경제의 능률을 제고시키고, 민간기업의 自律的 経営能力을 배양할 수 있도록 競争原理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며, 이로써 국제석유시장 동향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制度의 개선은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급격한 제도개편에 따른 혼란과 손실을 극소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油価制度는 経済의 능률을 제고시키고, 民間企業의 自律的 経営能力을 배양할 수 있도록 競争原理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改善되어야 한다."

問 油価制度와 需給問題 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石油税制입니다. 油種間 価格体系와 소비구조의 변화에 따라 현재 揮発油와 軽油에 부과되는 特消税도 탄력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택시연료인데도 揮発油에만 130%의 特消税가 붙고, LPG에는 특소세가 없어 모순을 빚고 있읍니다. 또 特消税는 従価税이기 때문에 소비는 감소하는데 가격인상시마다 덩달아 올라 소비자부담만 가중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社長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요.

答 基礎에너지인 石油類製品에 너무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을 뿐아니라, 石油類에 대한 세율은 従価税制이기 때문에 油価인상시마다 油価引上率만큼 세액이 자동으로 증가되므로 소비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石油類에 대한 세율을 従量税로 전환함으로써 장기적인 油価安定을 도모해야 할 뿐더러 특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揮発油의 特消税率은 과감히 인하하여 특정제품에 너무 과중한 세금의 편중부과로 야기되는 제품간 가격구조의 모순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問 최근 政府는 종합에너지정책수립에 관한 검토과정에서 国内石油製品 수요량의 10%를 実需要者가 직접 수입하도록 하는 石油製品輸入自由化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읍니

다. 저희 協会에서도 이미 이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읍니다만, 社長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答 석유류제품의 輸出入은 그 자체가 국내수급조절에 목적이 있읍니다. 이러한 目的외로 石油製品 수출입을 自由化한다는 것은 內需産業으로서의 精油産業의 특성과 精油産業의 連産品제조공정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精油工場의 적정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石油製品의 안정공급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精油産業의 특성을 고려하여 石油의 안정공급에 책임을 지고 있는 精油社에 국한하여 수급조절목적에만 석유류제품 수출입이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問 최근 原油価格이나 수급은 안정되고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精油産業의 여건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感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精油産業이 앞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対処해야 할 것으로 보는지요.

答 精油産業의 생존력을 높이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安定的으로 공급하는 길 밖엔 없읍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主要産油国및 原油導入先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所要原油를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확보하여 国內油類需給에 만전을 기해 국내에너지산업의 先導的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둘째로 에너지수급구조의 변화와 公害防止를 위한 低硫黃油의 공급에 따른 石油製品의 軽質化및 高級化에 대비하여 重質油의 軽質化시설과 低硫黃油 공급시설을 위한 시설투자의 시기, 규모, 자금소요등 対策을 검토해 나가는 한편,

셋째, 경제성에 입각한 原油의 精製와 이에 따른 과부족 제품의 효율적인 수출입, 製品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精製工程의 개발, 原油精製収率의 제고, 정유공장폐열이용등 에너지절약, 금융비용절감등 製造原価를 절감하고 수익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問 社長님께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精油業界의 어려운 사정을 누차 政府当局에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읍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精油業界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당국에 건의랄까, 바라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해주시지요.

答 精油産業은 国家의 基幹에너지産業이므로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先行되어야 합니다. 精油産業의 당면과제로서 당국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첫째, 정부의 代替에너지 政策의 추진에 있어 総에너지 需給의 국가적 경제성과 이로 인한 精油部門의 逆作用을 함께 고려하여 脫石油政策은 全에너지産業의 合理化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신축성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의 中長期에너지需給計劃수립에 精油社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石油類에 대한 特消税등 税制를 개선, 세금부담을 경감하여 수요를 伸張시킬 수 있도록 하고, 石油基金을 축소 또는 폐지하여 제조원가의 상승을 막고, 重質油의 軽質化시설및 低硫黃油 공급시설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油種間의 価格体系를 재편성하여 제품가격구조를 현실화하는등 자유경제원칙하에서 適正利潤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換率의 계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精油社의 換差損과 제품원가상승등 油価引上要因이 누적되고 있는데 換率上昇으로 인한 油価引上요인을 적시에 油価에 반영함으로써 物価에 대한 충격과 精油社의 결손누증을 방지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당국의 対策이 마련되어야 하겠읍니다. *

> "換率上昇으로 인한 油価引上要因을 적시에 油価에 반영함으로써 物価에 대한 충격과 精油社의 결손누증을 방지할 수 있는 対策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시대의 청탁풍조 새시대에 뿌리뽑자